

오직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잠언 6:6-19, 야고보서 2:14-26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사회와 가정, 현장에서 많이 지치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환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삶에 뿌리내리며,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체질화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세계를 돕고 살리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도전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이고,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주님 오시는 날 까지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나눌 야고보서 성경은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본서의 저자인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네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어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야고보에게 보고를 한다. 예루살렘교회의 결정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야고보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도, 체포되기 전에, 야고보의 지도를 받았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다고 알 수 있다.

(2) 그런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두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그러면 또 바울은 믿음만 이야기했겠는가? 그렇지 않다. 바울의 서신을 다 읽어보면, 모든 서신에서 바울은 전반부에서 믿음의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데 전반부만 읽은 것 같다.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영혼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 사도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리더였다. 리더는 전체를 보고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는 법이다. 이런 야고보가 보았을 때, 바울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잘 전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삶의 문제가 온 것이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고 생각하고, 야고보는 아예 복음에 대한 내용을 뺀 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잘 알 수 있다. 한국교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도약할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야고보가 그런 시간표를 본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고보서를 쓰게 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다. 그러니까 일어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비슷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과 헬라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도 계속 들어갔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마구잡이로 전달된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합지졸처럼 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야 할 시간표를 야고보가 보았던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친 데 달친 격으로,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 250년 동안 10명의 대표적인 황제가 핍박을 한 것이다. 학자들은 AD 46년쯤에 야고보가 본서를 기록했다고 추측하는데, AD 45년에 전 세계적인 대흉년이 있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교회 내적으로는 혼란,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시대적으로는 경제 위기가 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성도들이 burn out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미국 교포사회의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많다. 교포들이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다 풀어버리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그런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목회를 하니 많은 목회자들이 암에 걸린다.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다. ‘그리스도에 목숨을 걸었던 너희가 옛 체질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을 말하고, 참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1. 오직 믿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붙잡았던 오직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첫째는 오직 믿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였다가 성령충만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한 ‘오직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예컨대, 하나님이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에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노력도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의 믿음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믿음은 너무 중요하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이다.

(2)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인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되지, 왜 굳이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는가? 세상의 철학, 종교,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하는가? 종교로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선행으로는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더라. 그래서 이야기했다. ‘너희 중에 착한 사람 있나?’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철학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가? 지식으로 해결되는가? 지식으로 귀신 보는 문제, 악몽 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철학자, 철학관의 집술가, 교수들도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시달리고 있다. 지금 학교 문제를 교사들이 해결하지 못한다. 교사들이 학생을 살릴 수 없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학생과 학교를 살릴 수 있다. 몇 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뿐이다. 이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감당해야 한다. 가위돌리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자기 방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지경이니까 어떻게 생활이 되겠는가. 자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계속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된다. 귀신의 역사는 영적인 문제다. 그런 지식으로 우울증,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부싸움, 이혼 문제, 알콜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을 해결할 수 없다. 20년, 30년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나라에 국민감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감사하는 풍조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위원장님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봐도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그러다가 류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연락을 해 와서 우리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치유된 마약 중독자들과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체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모르고 있을 뿐이다. 정확하게 알고 적용해야 한다. 희망이 우리밖에 없다.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다. 시달림 때문에 절망이, 무당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두통, 정신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인, 가정,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참된 안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자.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불신앙했던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야고보서의 내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고 진실하고 복음을 알았던 우리가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간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가 불신자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야고보가 복음을 재확인시키는 것이 야고보서다.

(1) 약:2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한다. 이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섯 개의 요절 중의 하나다. 어떤 문제가 오면 나는 이 말씀이 떠오른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와도 심각하지 않다.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쁘냐 하고 물을 만큼 되어야 한다. 그게 그리

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판단을 잘못 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다. 약1:5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 판단이 흐려 지고 실수하게 된다.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이 지혜는 무엇인가? 환경, 조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시기 바란다.

(2) 약1:10에서는, 부한 자일수록 겸손히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부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하라는 것이다. 인간이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 교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록, 지식을 얻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한다.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한 것은 하늘에 영원히 쌓이게 될 것이다.

(3) 약1:15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욕심의 굴레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무엇을 과도히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마다 분수가 있고 위치가 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일확천금이 어디 있는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놓치니까 조화팔 같은 사람에게 수천억 원의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쉽게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하다가 다단계에 빠지는 것이다. 쉽게 뭘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땅에 쉬운 게 어디 있나? 그런 것이 바로 욕심이다. 정욕이다. 내가 아는 분도 큰 다단계에 있었다. 박사인데, 자기 월급의 열 배를 벌 때까지 열심히 일 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다시 다 없애졌다고 한다.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란다.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4) 또 약1:19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는 더디 하라”고 한다. 약1:20에는 성내지 말라고 또 말씀한다. 딸을 매로 때려 죽였던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웃으면서 자녀를 때릴 수 있겠는가?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도에 지나친 훈계를 한 것 아닌가. 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도 안에서 자녀를 훈계해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시기를 축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을 내거나 성을 내면 안 된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화난 척을 할 수 있다. 나도 부교역자들에게 화난 척을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안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보면 항상 기쁘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질을 잘못되게 만들면 안 된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증심을 지키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5) 약1:22에는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대로 살면 자녀를 때려죽이는 법이 없다. 교만한게 되어서 자리다툼하다가 목사들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할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 겨우 구원만 받고, 겨우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복음의 문을 막게 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이 바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6) 약1:27에는,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고아와 과부처럼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7) 약2:1에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범죄자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했던 한 장로님은 3년 동안 교회 지허추차장에서 봉사 했다. 온누리교회는 의무적으로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한다. 교회는 지위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다. 항상 섬겨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반대로 장로님들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낮아져야 한다. 교회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다. 섬기는 민주주의요, 영적 군대의 민주주의다. 군대이므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 섬겨야 한다.

(8) 약2:15-16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믿음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교회도 송파구청과 함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노인메이케어센터를 같이 섬기고 있다. 중증장애자들의 주간 보호시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지금은 약간 안정이 되었지만, 처음에 장로님들이 그러셨다. 우리 교회가 빛도 많은데 저런 복지 사역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빛 다 갖고 여유 생겨서 남을 도와 주겠는가? 우리가 힘들 때이라도 경제의 일부분을 쪼개서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천호동 보육원 아이들을 도와주었더니, 뭇만 필요하면 아이들이 나한테 전화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 사주는 13만 원 짜리 신발을 사달라고. (웃음) 여러분, 혼자서 힘들다. 같이 하자. (웃음) 학원비가 30만 원이다. 15만 원 가지고는 갈 데도 없다. 고아원에 그런 돈이 있겠다. 이것을 해야 한다. 혼자서 안 되면 팀을 짜서 한 사람이

라도 제대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한다.

(9) 약3:1-11에는 혀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함을 경고하고 있다.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많다. 초대교회에서도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에 와서 말을 함부로 하니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 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약3:8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재갈 물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잘못된 말을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재갈을 물려라. (웃음)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 안 그러면 지옥이 온다. 나는 처에게 농담을 못 하겠다. (웃음) 진담으로 알고 ‘나 안 해!’ 그러니까. (웃음) 맛있는 것도 맛있다고 해야지. 정말 항상 맛있다. (웃음) 농담을 못 하겠다. (웃음)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 조금 힘 나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졌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낙심하는 게 사람이니까. 재갈을 물려라. 복음 전할 때 빼서 말씀만 딱 전하고. (웃음) 명심하라. 재갈 없이도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10) 약3:13-18에는 악한 자들의 잘못된 지혜와 총명을 버리고, 참된 지혜, 즉 성결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엘리 트증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 사실은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잘못된 지혜다. 약3:13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선행을 좀 해 보라는 것이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이라는 것이다. 약3:14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과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하고, 믿음이 좋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그 마음 속에는 독한 시기과 다툼이 있는 것이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레 놓고는 마음 속에 독한 시기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약3:15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서 입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귀신의 것이다. 약3:16에, 결국 시기과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다. 혼란과 모든 악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약3:17-18에는 그래서 참된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참된 지혜로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교회에 모였다. 그러나 경제와 환경의 문제가 교회에 몰려왔을 때, 그들은 판단력을 잃고, 함부로 말하고 다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때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을 담은 진정된 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다. ‘너희가 모두 복음을 깨달았으니, 엘리야처럼 성결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모두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약5:17-18을 함께 보자.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난주에는 이근식 전 의원이 오셨고, 오늘은 김용동 의원과 구의원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소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아서, 기도가 다 성취되고,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 여러분밖에 없지 않나. 그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부분을 망각하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백수십 년 전에 주님이 한국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했고, 한국 교회도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교만한고 성도들이 욕심으로 살다가 사회에 물의를 너무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국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게 하시고, 그 의미와 축복을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체도,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